송금업체와 교비(qiaopi) 네트워크

Dr Alexander Ressos, TEP
Attorney-at-Law (Switzerland and Germany),
Solicitor (England & Wales and Hong Kong)
Of Counsel, KGP Legal LLC
alexander.ressos@kgplegal.com.sg
www.ressos.com.sg

교비(qiaopi)

싱가포르의 화교 이주민들은 수입의 상당 부분을 중국에 있는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그 수단은 송금액을 동봉한 편지인 교비*(qiaopi)*였습니다. 이 편지의 60% 이상은 부모나 조부모, 그중에서도 대부분 남성에게 보내졌는데, 이는 중국 가족의 가부장적 구조를 반영합니다.[1] 많은 이주민이 글을 쓸 줄 몰랐기 때문에 전문 대필가가 편지 한 통에 3~6센트를 받고 대신 써 주었습니다.[2]

교비는 경제적 목적과 사회적 목적을 함께 지녔습니다. 고향의 가족을 부양하고, 자녀 교육과 주택 건축 비용을 대며, 조상 제사 비용을 치렀습니다. 또한 교비는 가족과 마을 안에서 이주민의 자리를 지켜 주었는데, 이는 그가 언젠가 돌아갈 때와 종족 내 지위에 중요했습니다. 이주민들은 자기 집단 출신의 대필가를 찾았기 때문에 편지는 각 공동체의 방언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송금 체계는 싱가포르 화교 공동체의 방언 구조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송금업체

편지와 돈은 전문 업체인 교비국*(qiaopiju)*이 운반했습니다. 1887년 싱가포르에는 이러한 업체가 49곳 있었는데, 그중 34곳은 테오추인, 12곳은 호키엔인, 2곳은 하카인, 1곳은 광둥인이 운영했습니다. 이들은 1886년 교비 18만 꾸러미를, 3년 뒤에는 28만 꾸러미를 보냈습니다.[3] 20세기 초 싱가포르에는 약 200곳의 송금업체가 있었습니다. 이는 70~80곳의 페낭, 약 50곳의 방콕, 20곳의 자카르타보다 훨씬 많은 수였습니다.[4]

이 수치는 싱가포르의 허브 역할을 보여 줍니다. 동남아시아 전역의 이주민 송금이 싱가포르를 거쳐 중국 남부로 보내졌고, 이로써 싱가포르는 남양과 고향 지역을 잇는 통로의 주요 거점이 되었습니다.[5] 자금 흐름의 지역 허브라는 같은 역할은 1968년의 아시아달러시장(Asian Dollar Market)부터 오늘날의 패밀리오피스에 이르기까지 싱가포르 역사의 모든 후대 시기에 다시 나타납니다.

송금업의 운영 방식

송금업체는 우체국, 송금업, 무역회사의 기능을 겸했습니다. 이들은 흔히 이주민 거주 지역의 상점과 대리인을 통해 이주민에게서 편지와 돈을 모았고, 고향 지역의 제휴 업체를 통해 중국의 가족에게 전달했습니다. 돈은 현금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업체들은 싱가포르에서 모은 자금으로 중국 수출용 물품이나 외환을 샀고, 그 뒤 제휴 업체가 판매 대금에서 가족에게 돈을 지급했습니다.[6] 업체는 수수료를 받았고, 자금 운용 기간의 이익(float)과 환전에서도 수익을 얻었습니다.

이 체계는 전적으로 신뢰에 기반했습니다. 이주민들은 같은 방언 집단과 고향 출신의 업체에 저축을 맡기며, 여러 해 동안 만나지 못할 가족에게 돈이 전달되리라 믿었습니다. 업체들은 다시 자신들이 신뢰하는 중국의 제휴 업체에 의존했습니다. 영수증과 답장이 같은 경로로 돌아와 전달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사기나 파산으로 인한 손실도 있었지만, 이 네트워크는 한 세기 넘게 놀라울 만큼 믿을 만한 것으로 입증되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전성기, 쇠퇴와 유산

송금업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몇 년 동안 전성기를 맞아 싱가포르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사업 가운데 하나가 되었습니다. 중국의 정치적 변화와 싱가포르의 국민국가 전환이 이 체계를 약화시키면서, 업체 수는 1940년대 후반 약 200곳에서 1970년 약 60곳으로 줄었습니다.[7] 싱가포르의 화교 은행들을 포함한 은행들이 남은 사업의 대부분을 넘겨받았습니다. 2013년 교비 문서는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Memory of the World Register)에 등재되었습니다.[8]

오늘날의 컴플라이언스 담당자에게 송금업체는 불편한 연상을 불러일으킵니다. 신뢰하는 제휴 업체의 연결망을 통해, 흔히 자금의 물리적 이동 없이 돈을 옮기는 비공식 가치이전 시스템은 자금세탁 방지에서 익숙한 우려 대상입니다. 교비 체계를 효율적으로 만든 특징들, 즉 폐쇄적 연결망 내부의 신뢰, 교역을 통한 결제, 제한된 문서화는 그 현대적 후계자들을 감독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이 책의 제H편에서는 싱가포르가 오늘날 지급 서비스와 송금업을 어떻게 규제하는지 살펴봅니다.

흔한 오해

싱가포르의 화교 네트워크는 때때로 순전히 가족 관계에 기반한 폐쇄적 체계로 묘사됩니다. 실제로는 여러 층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가족이 가장 안쪽의 원을, 종족과 지역 단체가 그다음 원을, 방언 집단이 더 넓은 원을, 화교 공동체 전체가 가장 넓은 원을 이루었습니다. 각 층에는 고유한 제도와 고유한 수준의 신뢰가 있었습니다. 탄톡셍과 서유친(Seah Eu Chin) 같은 성공한 상인들은 유럽계 상사 및 식민 정부와도 관계를 쌓았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더 넓은 경제와 연결될 만큼 개방적이었고, 동시에 구성원 사이에서 의무를 강제할 만큼 폐쇄적이었습니다.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주

1. “Qiaopi: Remittance letters from Chinese migrants”, *Culturepaedia* (Singapore Chinese Cultural Centre),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60% 이상이 친조부모나 부모에게 보내졌으며, 수신인은 대부분 남성이었습니다. ↩
2. “Qiaopi: Remittance letters from Chinese migrants”, *Culturepaedia*,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편지는 흔히 “three to six cents per letter”를 받는 전문 대필가가 썼습니다. ↩
3. Hong Liu and Huimei Zhang, “Singapore as a nexus of migration corridors: The qiaopi system and diasporic heritage”,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020(초록 및 요약): 1887년 교비국 49곳 가운데 테오추인 운영 34곳, 호키엔인 12곳, 하카인 2곳, 광둥인 1곳; “180,000 packages of qiaopi sent in 1886, which increased to 280,000 three years later”. ↩
4. Liu and Zhang, “Singapore as a nexus of migration corridors”,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020: 20세기 초 싱가포르의 교비국은 약 200곳으로, 페낭 70–80곳, 방콕 약 50곳, 자카르타 20곳과 대비됩니다. ↩
5. Liu and Zhang, “Singapore as a nexus of migration corridors”,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020: 송금업체와 상업 단체들은 동남아시아 화교 공동체와 그 고향을 잇는 주된 이주 통로로서 싱가포르의 지위를 공고히 했습니다. ↩
6. 모은 자금을 교역과 외환 거래에 활용하고 중국의 제휴 업체를 통해 결제한 송금업체의 사업 모델에 관해서는 Liu and Zhang, “Singapore as a nexus of migration corridors” 및 Kwa Chong Guan and Kua Bak Lim (eds), *A General History of the Chinese in Singapore*, 2019에 수록된 “Money by Mail to China: Qiaopi and Chinese Remittance in Singapore” 장 참조. ↩
7. Liu and Zhang, “Singapore as a nexus of migration corridors”, *Asian and Pacific Migration Journal*, 2020: 전후 시기는 “golden era”였으며, 교비국 수는 “declined from its peak of 200 in the late 1940s to about 60 in 1970”. ↩

© 2026 Dr Alexander Ressos. General information only, not legal, tax or investment advice. No client relationship is created.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More information at SingaporeIQ.com and ressos.com.sg.

8. “Qiaopi: Remittance letters from Chinese migrants”, *Culturepaedia*, 최종 접속일 2026년 9월: 교비는 “included in the UNESCO Memory of the World Register in 2013”되었습니다. ↩

Disclaimer

This article is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 only. It is based on publicly available sources as at its date of publication. These sources have not been independently verified against licences, regulatory registers or the records of the entities concerned. It is not legal, tax, financial or investment advice. Nor is it a recommendation to invest in, transact with or use the services of any entity mentioned. Law and regulation change frequently, so the content may be incomplete or outdated. To the fullest extent permitted by law, Dr Alexander Ressos and the publisher of SingaporeIQ exclude all liability for loss or damage arising from the use of or reliance on this article. Readers should obtain advice on their specific circumstances before acting or refraining from action.

Names and trademarks of the entities discussed belong to their owners and are used for identification only. Their mention implies no endorsement, affiliation or allegation of wrongdoing. All Singapore law advice is provided by a duly licensed and regulated firm of Singapore advocates and solicitors only on the basis of an express written letter of engagement. Corrections and updates: contact@ressos.com.

© 2026 Dr Alexander Ressos. This article may be quoted with attribution to SingaporeIQ (SingaporeIQ.com). Reproduction in full and any commercial use require prior written consent. The Legal Terms at https://singaporeiq.com/legal-terms apply.

Author contact: Dr Alexander Ressos, TEP · contact@ressos.com